

‘그이(齒)와의 평생동행’ 담양군, 찾아가는 노인 구강관리사업

담양읍·대덕면·월산면 어르신 600여 명 대상
구강전담팀 2권역 나눠 12월까지 총 14회 진행

담양군이 담양읍과 대덕면, 월산면 어르신 6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인 구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노인 구강관리사업은 12월까지 총 14회로 진행되며 치과 의사 및 치과위생사로 구성된 구강전담팀을 2권역으로 나눠 구강검진과 시린이 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 틀니 관리법 안내 및 관리용품 지원, 치주질환 발생이 많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지원 등 개인별 맞춤형 관리를 진행한다.

2015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가량(43.3%)이 다수 치아를 상실하여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구강검진율은 21.1%에 그쳐 노인 구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노인 구강관리사업은 매년 권역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이번 사업 이후로도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구강관리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내실 있는 구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주 서구, 와이파이 통해 살맛나는 경로당 조성

10월 관내 230개 전체 경로당 설치 완료



광주 서구가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해 설치한 경로당 공공 와이파이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스마트폰 및 정보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서구는 광주 자치구 최초로 KT와 협약을 통해 지난 8월

월부터 경로당에 인터넷 및 공공 와이파이 설치 작업을 시작해 10월 관내 230개 전체 경로당에 설치를 완료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경로당이 재개소되면서 KT서광주지사와의

협약에 따라 경로당 스마트폰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은 전담팀 2개조로 진행되며,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기본적인 스마트폰 활용법부터 유튜브 이용법 등으로 진행된다. 서구는 올해 안에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에도 KT와 협력해 스마트폰 사용자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많은 어르신들이 정보 활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호동 호반경로당 김모 어르신(87세)은 “오랜만에 경로당에 와보니 핸드폰도 맘대로 쓸 수 있도록 와이파이도 달아주고 직접 찾아와 사용방법도 알려줘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광주 남구, 노인 고독사 예방 안부 전화

광주 남구가 홀로 사는 노인 등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전화로 안부를 묻는 ‘모바일 안심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안심돌봄 서비스’는 독거

의 집을 방문, 안부를 확인한다. 해당가구는 1인 가구 또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장년 1~2인 가구다. 남구는 해당 가구 1300여 명에게 서비스 이용 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동취재본부

영암군 치매안심마을,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장암마을 수국100그루 심어

영암군은 영암읍 장암마을을로 지정된 영암읍 장암마을의 지역주민들이 등록된 치매환자 및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지속적으로 편안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지낼 수 있도록 10월 15일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다. 치매안심마을이란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영위하며 원하는 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마을이다. 장암마을을 지난해 영암군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여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치매조기검진과 치



매환자 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예방교육 등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날은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장암마을 주민들과 영암군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장암정 주변에 수국 100여 그루를 심었으며 꽃심기에 참여한 장 00어르신은 “코로나19로 지

쳐있던 마을에 우울감이 해소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며 함박웃음을 지으셨다. 한편, 영암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가 있어도 지역주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치매친화적 치매안심마을을 조성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암=조대호기자

장흥군 유치면 우리동네복지기동대, ‘소규모 집수리’

3가정 불편사항 해결

장흥군 유치면 우리동네복지기동대(대장 문영균)는 지역 어르신 3가정을 찾아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했다고 전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방문해 낡고 찢어진 현관방충망과 노

후된 흡집의 도배와 장판을 교체해 주거 환경을 개선했고, 전기장판을 수리해 드리는 등 크고 작은 생활 속 맞춤형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복지기동대 최소 인원으로 참여했으며, 주민 불안을 덜기 위

해 활동 전, 후로 꼼꼼한 개인 방역수칙을 체크한 뒤 시행했다. 김안곤 유치면장은 “어려운 어르신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불편사항을 듣고,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시각각대에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